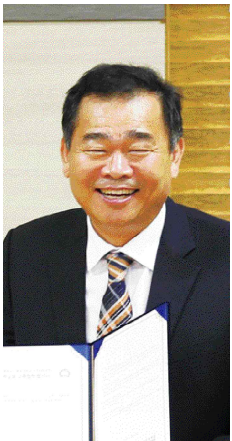




▲ 지리산 등반

열정 있는 선생님, 즐거운 학생이 있는 학교

완도고등학교 전남형 과학 중점학교로 선정



▲ 양병주 교장

완도고등학교에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완도고는 2016년도 양병주 교장의 부임과 함께 전남형 과학 중점학교로 선정되어 지역 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선택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완도고의 변화 방향을 설정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완도고등학교(교장 양병주)는 지난 8월 31일 목포대학교 자연과학대학, 9월 5

일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과 과학교육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과학중점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과학시설 운영에 필요한 교수 요원의 파견, 대학시설의 활용 및 공동사업 추진 등을 추진하고 이공계 전문가 초청강연회, 대학생과의 공동연구의 논문작성, 선택형 과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과학중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완도고는 지난 9월 10일 목포대학교 실험 캠프를 계획·운영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대학생들과 함께 하는 물리 실험에 참여해 창의적인 사고와 과제 해결 능력 등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강지연 교사(과학중점담당)는 “학생들의 활기찬 웃음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 뜻 깊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갖고 과학적 원리를 터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꾸준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완도고는 이 외에도 과학 연구 학교로 도요 과학 실험 캠프 및 조별과제발표, 과학 UCC 대회 등 다양한 과학 체험 교육을 실시해 지난 10월 25일 상호 배움 중심 활동을 통한 문제 해결력 신장이라는 연구 주제로 발표회를 갖고 큰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완도고는 2016년 전남형 과학중점학교로 선정된 올해부터 3년간 과학 중점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완도고 측은 “다양한 과학·수학 체험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의 과학과 수학 학



력 성취도를 높이겠다”면서 “자연이공계열 학생 비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이공계 진학률도 상승하는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문교육 위한 인문학 강좌

완도고등학교는 1학년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문학적 접근 방법을 거머 학생 개인의 특기와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총 4회 인문학과 연계하는 교실을 열어 인건, 사회, 과학, 예술 등 다양한 인문학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세부 강좌로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가(박진우, 5월 9일) ▲생태적 삶과 교육(하승수, 6월 16일) ▲차별과가 살길이다(스티브 김, 7월 12일) ▲소리를 통한 꿈과 기의 발산(재정화, 9월 8일) 등의 강연이 열렸다.

완도고 1학년 학생은 “ 평소 시험과 수행평가 등 학업에 집중되어 있던 학교 생활에서 인문학 강좌를 통해 나의 삶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모색을 할 수

있게 되어 뜻깊었다”고 인문학 강좌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인문학 강좌를 진행해온 김성환 교사는 “인문과 강좌를 통해 사유하는 아이들이 사유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과 세상을 위한 기초 소양이 인문이고, 이 인문적 소양이 행복한 삶을 가꾸어나갈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색 있는 학생 활동의 활성화 통한 학생 중심의 학교

완도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과 나눔,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전왕봉 등반 수련 활동과 소록도 봉사활동 등 특색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해왔다고 전했다.

▶ ‘이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가기에요... 함께하는 뜻깊은 도전, 전왕봉 등반’

지난 6월 13-15일, 185명의 학생과 인솔교사 8명이 지리산 선왕봉에 올랐다.

어렵고 힘든 코스를 친구들과 사제가 함께 오르면서 스스로에 도전에서 나아가 공동체에서의 배려와 협동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이날 함께 산행에 오른 양병주 교장은 “등반을 통해 도전과 극복이라는 소중한 경험을 얻고 나아가 학생들이 자신들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고 삶에 대한 희망을 얻는 데 귀중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고 전했다.

완도고등학교 2학년 김유선 학생은 “전왕봉까지 올라가는 데에는 많은 힘과 끈기, 노력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등산은 몸과 비슷할 거 같다. 처음에 높은 정상을 바라보고 목표를 가지게 되고 기대하게 된다. 그리고 산을 오르며 힘들어 하고 도중에 포기할 생각하는 경우도 생긴다. 끝까지 견디내고 정상까지 오르게 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라며 “이번 전왕봉을 다녀온 후 예전보다 더욱 끈기 있어진 자신을 보며 꿈을 이루기에 충분하다.”라며 자신감을 전했다.

▶ ‘선택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완도고등학교는 학생의 희망에 따라 수업 받을 수 있는 ‘선택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자기 개발과 학력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완도고는 이번 여름방학을 시작으로 선택형 방과후학교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방과후 프로그램은 1차적으로 개설된 강좌를 토대로 학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수강 신청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학생 수강 인원을 15~20명을 제한하여 수업을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방향을 고려하고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선택형 프로그램을 기획한 김진욱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의 폭이 넓어져 교육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이년을 시작으로 앞으로 선택형 방과후 운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꾸준히 보완해 나갈 것이며, 방과후학교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함으로써 공교육의 힘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과 흥미에 맞게 자율적으로 방과후를 선택하기 때문에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 훨씬 쉽고 재미있으며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한 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완도고 소록도 봉사활동을 올해 처음 계획하고 진행되었다. 학업에 쫓기면서 서로 경쟁하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한 소록도 봉사활동을 보람된 활동을 찾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완도고 3학년 황세은 학생은 “얼마나지 않은 수능에 많이 망설였지만, 이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의미 없는 고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주변을 항상 돌아본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해서 온 것 같다”고 말했다.

